



질병 냄새를 맡는 동물들의 능력에 관하여

최종욱 (최종욱) (최종욱)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우린 흔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동물들의 비상한 능력을 두고 육감이니 초능력이니 하면서 과장하여 부르길 좋아하지만, 그 이면에는 같은 포유동물로서 그 능력을 격하 시키려는 질투 섞인 마음도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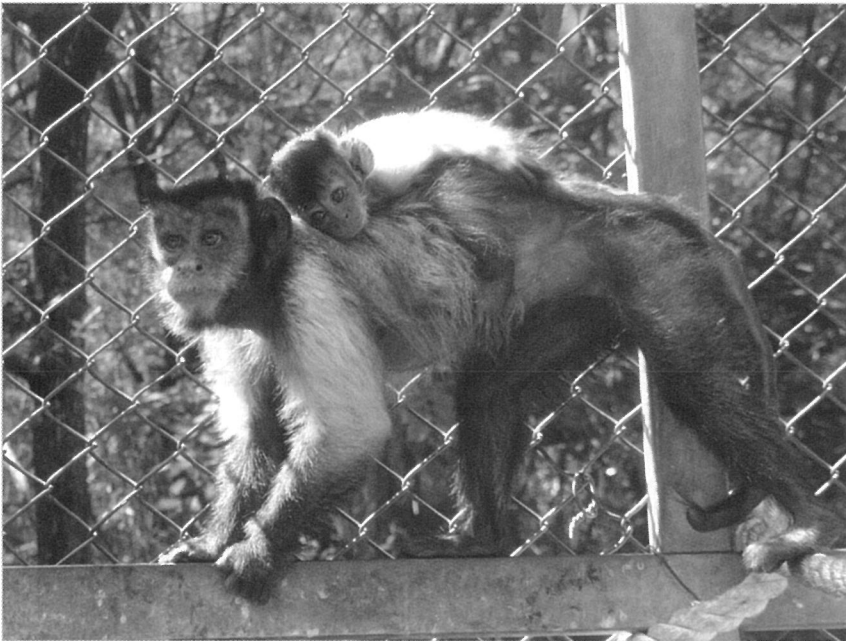
그러나 그 능력들은 예전에 야생에 살던 인간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고 현재도 몽고의 유목민이나 아프리카 부시맨들은 3.0 이상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몸이 편한 환경에 적응하면서부터 바로 그런 고능력들을 스스로 상실하고 말았다. 대신 사회생활에 편리한 습관들을 재빨리 배우게 진화 되었다.

용불용설이란 개념이 인간에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바로 자연에서 홀로서기 능력의 상실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한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주인의 다리 한 부위를 유독 자주 냄새를 맡길래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았다. 그랬더니 피부 안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자라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가끔 해외도 픽으로 소개되곤 한다. 피부병 치료 물고기나 거머리들도 주로 인간의 상처부위만 집중 공격하길 좋아한다.

우린 무균적으로 키운 거머리나 구더기가 화농 치료에 종종 쓰이는지 정도는 알면서도 개나 고양이가 이런 깊은 상처의 냄새를 맡는다는 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포유동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당연히 그들도 없으리라 치부해버린다.

이런 사례들이 자주 토픽이 되는 탓인지, 요번에 주요 과학



전문잡지인 '네이처'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바로 그 동안 해외토픽 감이 되듯 신비의 영역으로 거론되던 '포유동물들이 과연 질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여러 마리의 개들을 상대로 한 이 실험에서 이들 개 코는 상처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들'의 냄새를 정말로 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인간은 경우는 그저 무색, 무취로 판단하는 아주 작은 분자 수준(나노단위)의 물질들이다.



동물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온 나로서는 이런 동물들의 능력을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아시아물소가 새끼를 낳았다. 그 물소는 예전에도 새끼를 여러 차례 잘 키워 본 베테랑이라 당연 이번에도 잘 키우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새끼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웬지 처음부터 젖을 먹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인공포유로 3개월 정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죽어 버렸다. 부검해보니 사인은 심장기형으로 나왔다. 심장이 흉강 내에 자유로이 떠 있어야 하는데 이 녀석은 늑골에 꼭 유착되어 커가면서 계속 심장에 압박을 받은 것이다. 이를 질병냄새를 맡는 포유동물들의 능력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렇지만 만일 선척적 기형까지를 미리 알아낸다면 인

간들이 보기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다.

폐암에 걸린 호랑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식욕부진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길래 '고양이 천식'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했다. 처음엔 동료들도 그의 먹이를 건드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 같은 이타적인 동료애를 보이길래 격리보단 함께 지내게 하는 편이 치료에 더 나으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동료들이 아픈 녀석의 꼬리를 물어뜯어 놓았다. 즉시 격리 시켰지만 그 후유증이 겹쳐서인지 결국 얼마 못가서 죽고 말았다.

부검결과는 폐암으로 나왔다. 아마도 폐암 초기에는 동료들도 죽음의 냄새를 맡지 못하다가 점차 죽음의 냄새를 진하게 맡게 되고 이 냄새는 그들에게 일종의 집단공포와 흥분을 불러 일으켜 그 근본을 없애버렸다는 게 동물심리학적 판단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잔인할 수 있지만 야생에 사는 동물들이 전염병이나 오염을 막는 자연스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fin~♡

